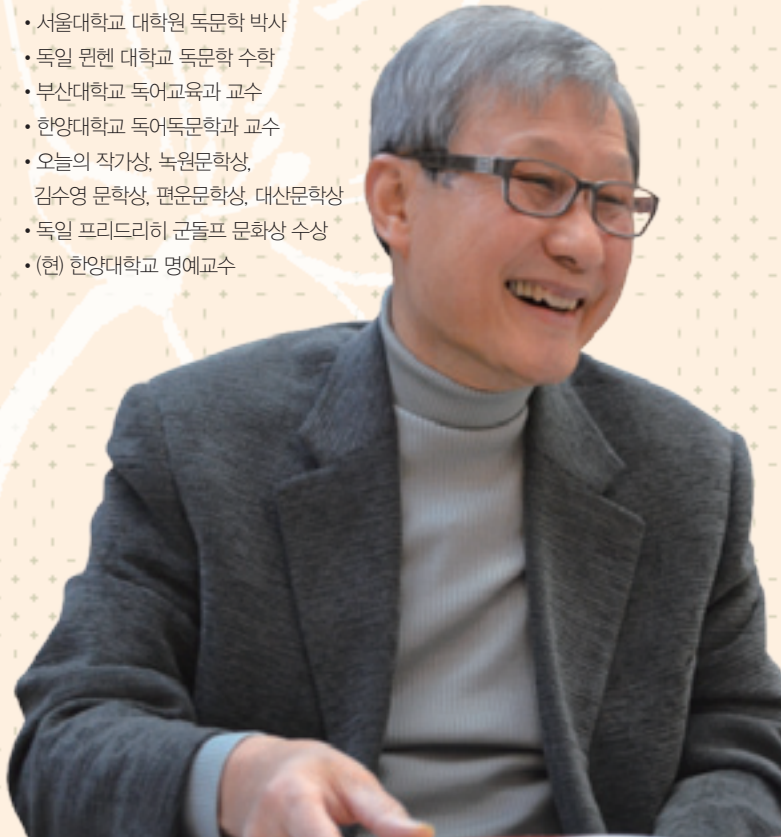


“시인과 독자가 만나는 접점이 있어야 생명력 있는 시가 태어나”

김광규 (시인, 한양대 명예교수)

- 서울대학교 대학원 독문학 박사
- 독일 뮌헨 대학교 독문학 수학
- 부산대학교 독어교육과 교수
- 한양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 오늘의 작가상, 녹원문학상,
김수영 문학상, 편운문학상, 대산문학상
- 독일 프리드리히 군돌프 문화상 수상
- (현)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4.19가 나던 해 세밑 / 우리는 오후 다섯 시에 만나
/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중에서
“크낙산 골짜기가 온통 / 연록색으로 부풀어 올랐을 때
/ 그러니까 신록이 우거졌을 때...” 「나뭇잎 하나」중에서

평범한 일상 속의 소시민성을 시로 승화시킨 시인. 쉬우면서도 쓰기 어렵고 일상적이면서도 비판적인 작품으로 한국시에 ‘일상시’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 시인, 김광규 교수를 만났다.

● ● 대학시절 독문학을 전공하셨는데, 특별히 독문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요.

제가 대학 진학할 당시에는 대부분 부모님들이 법대나 상대 또는 의대를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아버님은 그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혼자서 과를 선택했지요.

고등학교 때 외국문학전집을 많이 읽었는데, 북유럽에서 나온 작품이 드물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북유럽 문학을 연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북유럽 문학을 다루는 우리나라 최초의 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북유럽 문학을 다루려면 독일 문학이라는 교량을 지나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에서 독문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유학을 가서 독일어권 문학을 공부하다가 독일 문학이라는 원시림에 갇혀버렸어요. 독일문학이라는 징검다리를 건너 북유럽 문학을 공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셈이지요.

● ● 대표작인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는 4·19혁명을 다룬 시로 알고 있습니다. 4·19혁명이 일어난 후 18년이 지나고 나서 이 시를 쓰셨는데 창작하실 때 기억에 남는 일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저도 시위 행렬에 참가했어요. 실제로 제 곁에 있던 친구가 총에 맞아 쓰러지기도 했지요. 그 당시 학생 시위는 순수했어요. 시위를 끝낸 다음 거리 청소로 마무리를 하고, 모두들 학교로 돌아갔으니까요.

독일에서 귀국해서 1979년 부산대 교수로 재직할 때, 부마항쟁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 위수령이 내려져 탱크를 앞세운 군인들이 학교에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교수 신분으로 학생들에게 시위에 가담하지 말라고 “학생지도”를 했는데, 4.19 때 학생시절이 떠올라 부끄러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시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입니다. 이 시는 기성세대의 부끄러움을 담은 절망의 노래입니다.

원래 1979년 겨울에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대통령 시해사건에 뒤이어 등장한 신군부 탄압 조치로, 게재 예정 계간지 〈창작과 비평〉이 갑자기 폐간되어 발표의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다음 해에 나온 저의 첫 번째 시집에 겨우 실렸습니다. 이 시는 널리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많이 인용되었지요.

● ● 서른다섯이라는 조금은 늦은 나이에 시인으로 데뷔하셨는데, 시를 써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요.

서울중,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때 국어 교사로 재직 중이셨던 시인 조병화 선생님과 소설가 김광식 선생님께서부터 직접 국어

작문을 배웠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유일하게 저를 칭찬해주셨던 선생님들이셨죠(웃음).

고등학교 2학년 물리시간에 조병화 선생님이 저를 찾으셨어요. 저더러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문예>>잡지 문학작품 공모에 제출할 시를 써내라고 하셨어요. 저는 물리 시간을 싫어했기 때문에, 다시 교실로 들어가지 않고, 복도에서 시를 한 편 썼어요. 그런데 그 시가 장원으로 뽑혔지요. 그때부터 문학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1975년에 시인으로 데뷔했는데, 36개월간 군복무 후, 취직도 하고, 독일 유학도 다녀오다 보니, 등단이 늦어졌습니다. 그보다도 더 궁극적인 이유는, 문학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우선 독립된 인간으로 사회에 발을 딛고, 가정을 꾸리고, 생업의 기반을 잡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대학(大學) 격물치지(格物致知) 편에 나오는 수신제가(修身齊家) 후에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라는 유교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것이지요.

● ● 일상시(日常詩) 영역을 새롭게 개척한 시인으로 유명하신데, 특별히 평범한 시어와 명료한 문장으로 시를 쓰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960년대에 발표된 우리나라 현대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난해한 시였습니다. 심지어 시라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소리를 써야하지 않나 하는 선입관이 들 정도였지요. 기성 시인들이 다들 난해하게 시를 쓰니까, 나도 어렵게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독일 유학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달라졌어요. 당시의 독일시를 읽어 보면 내가 외국인인데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는 꼭 난해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이 읽어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게 써야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평이한 일상어로 우리의 현실을 진솔하게 다룬 일상시를 발표했는데, 처음에는 엇갈린 평단의 반응이 재미 있었습니다. 일상시의 등장을 한국 현대시 문학사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사건으로 기리기도 했고, 더러는 이것은 시가 아니라고 주장한 평론가도 있었어요. 그런데 차츰 읽다보면 한 꺼풀 뒤에 다른 의미가 있고, 그 뒤에 또 새로운 형상이 나타나니까 독자들이 차츰 제가 쓴 일상시를 새롭게 수용하기 시작했지요.

시가 생명력을 가지려면 시인과 독자가 만나는 접점이 있어야 합니다. 시인이 쓴 시를 하늘에 날고 있는 갈매기라고 하고 독자를 수면이라고 한다면, 갈매기가 수면의 물고기를 낚아채는 그 순간이 바로 시인과 독자가 만나는 접점입니다. 갈매기가 공중에 떠 있으면서 아래를 관찰하는 시간을 시인이 작품을 숙성시켜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수면과 맞닿는 시점은 독자들이 시에 대한 공감 또는 깨달음을 얻는 순간입니다.

● ● 그동안 많은 작품을 써오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다면.

자녀가 여럿 있는데 어느 자식을 제일 사랑하느냐는 질문과 비슷하네요(웃음). 저는 지금까지 8백여 편의 시를 발표했는데, 한 편 한 편 긴 고심 끝에 힘들게 탈고한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애착이 가는 작품을 고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를 꼭 선택해야 한다면,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작품들 가운데

춘추(春秋)

- 김광규

창밖에서 산수유 꽃 피는 소리

한 줄 쏜 다음
들린다고 할까 말까 망설이며
병술년 봄을 보냈다
할것 들여다본 아내는
허튼소리 말라는
눈치였다
물난리에 온 나라 시달리고
한 달 가까이 열대야 지새며 기나긴
여름 보내고 어느새
가을이 깊어갈 무렵
겨우 한 줄 더 보냈다
뒤뜰에서 후박나무 잎 지는 소리

데서는 <춘추(春秋)>라는 시를 고르고 싶어요. 9번째 시집<<시간의 부드러운 손>>에 실린 작품입니다. '춘추'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말 그대로 봄과 가을을 뜻합니다.

이 작품은 아주 짧지만 시인이 시를 쓰는 과정 자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걸고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시를 이렇게 쓰는구나' 새삼 깨달았다면서요. 시를 보면 극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지요. 봄부터 쓰기 시작한 시를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올 때까지 탈고하지 못하다가, 가을이 깊어갈 때 가까스로 한 줄 보태고 그만두었다는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작품 완성에 실패한 시작(詩作)의 과정을 시로 쓴 셈입니다. 자식에 비유하자면 못난 자식이지요. 손꼽히는 작품 보다는 못난 작품에 더 애착이 갑니다.

● ● 선생님 작품은 그동안 영어·프랑스어·독일어·스페인어 등 총 10개 국어로 번역되었고, 최근 시선집 '상행'은 아랍어로도 번역되어 이집트에서 출간했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반응이 좋은 작품은 무엇인지요.

언어권 별로 방향에 차이가 있지만, 외국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작품은 <안개의 나라>입니다. 이 시는 여러 나라에서 번역, 소개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20여 년 동안 독일어권에서 수십 회에 걸쳐 서정시 페스



한계령 정상에서 김광규 교수와 부인(1985년). 김 교수는 주요 작품을 왕성하게 발표했던 젊은 그 시절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시적이었다고 했다.

티비에 초청받기도 하고 작품 낭독회도 했는데, 거의 예외 없이 대표작 중의 하나로 이 시를 읽었고,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독일 쾰른의 라디오 방송과, 북부독일 방송 NDR 문학 프로에 출연했을 때도 〈안개의 나라〉를 낭송했습니다. 독일의 어느 원로 시인이 〈쥘트 도이체 차이퉁〉의 칼럼에서 이 시를 다루기도 했지요. 2002년에 스페인어권인 남미 컬럼비아의 메데진에서 열린 대규모 국제 서정시 페스티벌에 참가했을 때, 개막식에서 이 시를 낭송했습니다. 이튿날 현지 유력 일간지가 개막식 보도를 하면서 뜻밖에도 이 시의 스페인어 텍스트를 컬러판으로 실었어요. 그날 낭송된 시 중에서 아마도 길이가 짧아서 채택되었으리라 짐작하면서도, 원작자로서 여하튼 기분이 좋았지요. 지난 7월에는 영국 BBC 라디오 방송국 문학프로 ‘Poetry Please’ 에서도 이 시를 방송했습니다. 이메일로 미리 허락을 구하고, 나중에 저작권료를 송금해 온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안개의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안개는 자연현상 중에 가장 위험하고 큰 재앙을 몰고 옵니다. 안개로 인해 자동차 추돌사고와 비행기 이착륙사고가 생기고, 전쟁도 안개 때문에 승패가 갈리는 수가 있습니다. 안개가 시야를 차단하면 청각으로 잘 들어야 합니다. 통제된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일단은 순응하는 수밖에 없지요. 군부독재 시절 한국 사회를 가장 잘 표현한 시라고 외국에서 많이 인용됐어요.

〈가을 하늘〉이라는 작품도 있어요. 가을 하늘을 보면 구름 한 점 없이 파랗지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하늘에는 구름도 떠다니고 바람도 불어야지, 구름 한 점 없이 팽팽히 긴장되어 있다면, 사막에 혼자 있는 것처럼 숨 막히고 견딜 수 없을 거예요. 명령에 따라 획일적이고 일사분란하게 돌아가는 사회는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저의 중국어 번역시집을 중국 북경대 차오원쉬엔(曹文軒) 교수에게 증정한 적이 있는데, 다음 해에 북경대 대학원 입학 시험에 〈가을 하늘〉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 ● 〈나뭇잎 하나〉라는 작품이 200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 시가 수능 시험 문제에 출제되었다고 고등학교 교사로 있는 제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호기심에 제가 ‘그럼 시험지 좀 보내달라’고 했지요. 시험문제에는 한용운의 〈님의 침묵〉, 작자미상 가사인 〈춘면곡(春眠曲)〉, 그리고 제 작품이 함께 나왔고, 문제는 총 다섯 문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를 풀어보려고 시도해보았더니, 모두가 알쏭달쏭했습니다. 결국 다섯 문제 다 틀렸습니다. 시가 수험생에게 고통을 주는 자료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차라리 외국에서 하듯이 학생들에게 초중고 시절에 시 100편을 외우게 하는 것이 시 교육에 생산적일 것 같아요.

● ●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 외 분쟁해결기구(ADR)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전문화될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분쟁과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 원로로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신문을 읽어보면 매체 상호간에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다른 신문이 논조가 틀렸다는 거지요. 편집 노선이 다른 신문들이 각자 지향하는 바가 다른 것은 당연하고, 생각의 다양성에 바탕을 둔 민주 언론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자사와 견해를 달리하는 타사를 헐뜯는 일은 삼갔으면 좋겠습니다. 독선적 태도는 독자들을 피곤하게 하니까요. 그런 지면이 있으면 오히려 독자들의 교양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하나 더 실는 편이 낫겠어요. 시인이 시를 통해 발언하듯, 신문 방송은 정확한 정보가 땀땀 실린 객관적 기사를 통해서 자기의 주장을 전달해야하지 않을까요? 개인도 마찬가지로 무책임한 비방을 삼가야 하겠지요. 요즘은 또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발언이 큰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다 포괄적인 기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므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에 기대가 큼니다.

● ● 지금까지 10권의 시집을 출판하셨는데, 시인 김광규에게 ‘시’란 무엇인가요.

포괄적인 질문이네요. 제 인생에 있어 가장 큰 목표는 좋은 시를 몇 편 남기는 겁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독자들과 소리 없는 교신을 지속하는 매체가 저에게는 바로 시입니다. 저의 ‘레종 데트르(존재 이유)’인 셈이지요. 예기치 못했던 시상이 떠오를 때, 그것을 메모하기 위하여, 저는 항상 필기도구를 지니고 다닙니다. 밤중에 잠들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눈떴을 때, 요즘 쓰고 있는 시 구절을 생각합니다. 만약 저의 집에 불이 난다면, 가장 먼저 가지고 나갈 물건이 제게는 시를 써 놓은 원고입니다. 일실(逸失)된 원고를 되살리기는 아주 어렵거든요. 시를 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종족, 시인이라 참으로 이상한 존재입니다. (웃음)

• 진행 | 손정배 (홍보팀장) • 정리 및 사진 | 최승민 (홍보팀 차장)